어려워도 진실하게 믿고 놓으면 그게 사는 길

☞29면에서 계속

다른 혹성의 세계를 관찰해야죠.

그렇게 관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딱 찍어놓는다면 그대로 법이에요. 그런데 내 몸도 그렇고 죽느냐 사느냐도 자기 마음대로지 구태여 그것을,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으로 하나 점찍어 놓으면 되듯이, 영화 속에서 다 죽어도 그 주인공 하나만은 살 수 있도록 찍어놓는다면 여러분이 왜 걱정 근심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극치적인 삶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이며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에 명주옷만 입고 무명옷 입었다고 해서 전자의 명주와 똑같아야 하고 전자의 명주를 입어야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발전을 하려면 즉, 명주도 지금 실크로 만들어서, 실크만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고상하게 색채를 다내서 또 꽃을 만들어서 다 조화를 이루어서 딱 상점에 내놔야 잘 팔리겠죠. 이름은 바꿔졌으나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지금 가르치는 것이 명주, 무명 고대로 그냥 가르치고 있으니, 실크가 벌써 나왔는데 명주 가르치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오죽이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부처님 법을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숭상하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 국내에서 부처님 법을 삼백 년, 오륙백 년 뒤떨어지게끔 해서 쓰겠습니까? 앞장서도 지금 서럽다고 할 판국에 그래 뒤떨어져서, 한 오륙백 년 뒤떨어져 가지고서는 그때에 가서 "아이고, 부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복으로써 비는 것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스님네들도 그냥 경을 가르쳐주는 강원(講院)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스님네들도 앞으로는 명주, 그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근본은 똑같으니 실크로 만들어 보자. 실크로 나왔으니 실크라는 이름이 바로 명주라는 걸, 양면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겁니다. 실크에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지금 모든 국민이 원하고 찾는 대로 꽃 모양을 놔서 세상에 내놔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무슨 계획하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공부를, 공부 아닌 공부를 하시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래 스스로서 청정하고, 스스로서 체계가 서 있고, 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청정함도 없는 게 진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처라는 이름도 부수고 넘어가야 될 판국이죠. 이 커피잔이 만약에 부처의 이름이라면 커피잔을 부수고 들어간다 하는 건 뭘 뜻하느냐? 내가 이 커피잔에 물 들어있는 걸 갖다가 마셔버리면 그냥 나하고 둘이 아니니까 이 커피잔의 이름을 말할 거는 없죠. 둘로 나누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항상 나요, 바로 내가 급하면 커피잔을 들고 물도 떠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로 비유했지만 잘들 새겨들으세요.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이 일을 하려고 나가보니까 아, 새들이 모여서 지저귀고 있거든요. 이 소리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중국 어디에서 그랬대요.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보기도 한 얘깁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까마귀는 무(無)의 세계의 영령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까치는 지금 현실에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전해주는 것은 "아이구! 또 까마귀가 울어댔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네 집에 오늘 저녁에 강도가 들어서 죽을 테니까 피하라고 피하라고 막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는, 강도를 당해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아이구, 그 까마귀가 와서 짖더니 이렇게 흉한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왜 까마귀 탓을 합니까? 일러줘도 못 알아듣는 자기 탓을 하지. 그리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그랬는데 좋은 소식뿐이 아닙니다. 일가친척 사기꾼이 오는데 까치가 까악까악 짖었다 이거야. 일가친척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둑질 아닌 도둑질을 해간다 이겁니다. 그거는 또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것 마저 해야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려니까 아, 새들이 모여서 막 재잘대고 그러거든요. 잘 들어보니까 지금 어느 나라의 그 창고에 금이 있는데 도둑질을 해 내갈 텐데, 이 국고가 비면 큰일 날 텐데 야단이라고 아, 이러면서 지지고 볶거든요. 그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큰 야단이 났거든요. 자기가 얘기해 봤던들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이거 큰일났다고 하면서 단숨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아, 들어가질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겠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조심하십시오. 이 국고가 빌 테니까 철저히 지키라고 하십시오." 이랬더니 "이 미친놈 보라고, 이 미친놈! 이놈아, 이 미친놈아! 네가 와서 그러는 걸 내가 가서 얘기하면 나도 미친놈으로 모가지 달아나가." 그러니까 나 말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 지나니까 정말 도둑을 맞았거든. 국고의 금덩어리가 그냥 다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거를 나라에서 찾느라고 온통 뒤집고 야단들을 했는데 그때의 그 생각이 문득 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일러준 게.

그러니깐 장군한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얘길 하니까 장군이 뭘 생각했느냐 하면, 그거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놈이 그렇게 잘 들으니 내가 저걸 이용을 해서 새가 뭐라고 그러는가? 어디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서 내가 좀더 나라에 이름도 올릴 겸, 돈도 벌 겸 해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아, 찾아서는 떡 "너, 아침마다 나가서 새소리를 들어라.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시켜서 가서 들어보니까는 "얘, 고놈 나쁜 놈인데 얼마 안 있으면 모가지가 달아나갈 거다." 그러거든요. 허허허. 아, 새들이 그러고 하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럭했다 하면 큰일날 테니까. 쭈물쭈물하니깐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릇도 못하겠다고 해서 몹쓸 고생을 하고 자기 부모까지 다 잃고 관가에 끌려가서 자기 가족도 몹시 매를 맞고 그래서 스스로서 그냥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을 잘못한다거나…, 물론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은 값 있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말이란 건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집에 키우는 돼지들이 말을 하기를 "아, 저 집은 소를 팔아왔는데 그 소 판 돈을 지금 가지고 있어. 저렇게 돈이 있는데도 가난한 척하고 있잖아?" 하고선 말을 하거든요. 돼지들이 꿀꿀꿀꿀 해도요, 그 가정 일들을 다 알거든요. 돼지밥을 갖다 주는데 꿀꿀꿀꿀 하곤 돼지가 돼지물을 먹으면서 아, 서로 고개를 이러면서 하거든요. 소를 팔아왔는데도 우리 밥은 물만 준다 이거죠, 물만 준다. 하하하. (대중 웃음) 그래서 그 소릴 들은 사람이 하도 우스워서 껄껄대고 웃다가 옆 사람이 "넌 미친 놈처럼 왜 웃니?"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그 소리가 나온 겁니다, 무의식중에. "아, 글쎄 돼지들이 말이야, 밥을 먹으면서 이 집이 소 판 돈이 있는데도 먹을 걸 이렇게 안 주고 그냥 뜨물에다가 만날 술지게미만 줘가지고선 우리들을 취하게 만들고 못살게 만든다고 이러더라고." 하며 껄껄대고 웃었단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불쑥 나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을 다 잃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현실에도 저 까마귀나 까치처럼 사생의 말 못하는 것들도 그 뜻을 모두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참, 오백 나한을 만든 자체도, 소로 변장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도를 닦고 있다가 다시금 보살로서 등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적 떼들 오백 명을 부처님 앞에 귀의하게 만들어놓고 그랬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다 잘 아시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은 제가 쓸모 있는 말이든 쓸모없는 말이든,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치않은 말이라도 좀 더 믿으신다면 이 '컵'이라는 질서 있는 이름을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기를 수 있는 인연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8년 9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딱 찍어놓는다면 그대로 법!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은 상설 참선수행 정진 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 · 출소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수행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행방식대로 간화선이든, 위빠사나이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오셔서 잠깐씩 수행하시기는 더욱 좋은 도량입니다.

바로 지금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실천하는 당신은 아름답고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 가는 길 : 서울 → 양평 → 홍천(44국도) → 철정검문소 → 수련원(451지방도로)

◆ 교 통 편:
[승용차] 서울-88도로-양평-홍천(44국도)-철정검문소에서 우회전(상남,현리방향)-451지방도로 (7㎞정도가면 좌측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팻말 보임)
[버 스]
1) 동서울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서 홍천行 버스
2)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상대리行표 구입
-1번홈에서 내촌 혹은 현리行 버스 승차
-화상대리 학교 앞 하차

전 화 : 033)433-5845
입방비 : 일만오천원(1일)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장 혜거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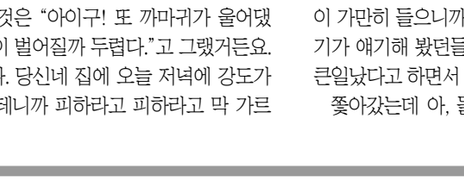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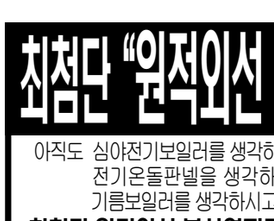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요사채 신축
석가래 교체
기 와 교체
전 지붕 공사 일체
기와공장 천안
011-9820-0112
041)554-0112

命理學의 새 지평을 여는 四柱解說의 革新書
體用 四柱原理 要解
체용사주원리요해
金靈震 著

비롯된 命理學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體用法을 創案하였다. 많은 착오가 발견되었으며 이런 점들을 시정하여 日干自我說 및 神殺論에서 다섯째 神·殺로써 사주를 논하는 등이다. 이상의 이론들은 현실적으로 셋째 六親 배정의 불합리 넷째 十身을 근거로 한 길흉론 첫째 日干을 자기로 고정시킨것 둘째 日干을 기준으로 한 身强·身弱의 분별 命理學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모순과 불합리함을 몇 가지 발견하였다. 평소 四柱와 六爻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사례를 체험하고 연구하며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부호로 설정되어 있는 우주 내의 자신의 좌표이다. 이 부호에 함축된 내용을 연구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 발전 시킬 수 있으리라.
- 머리말 중에서

신국판 / 고급양장(커버) / 314면 / 값 20,000원

화엄사 (100-846)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0-2 죽전빌딩 6층 T_(02)2269-1399
불교서적 및 일반 서적류 기획, 편집, 출판 / 팜플릿 등 고급 인쇄